

지역 매아리

권익현 부안군수, 예산 확보 국회·기재부 대응 '총력전'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동학농민운동 백산대회 역사공원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들을 건의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날 전 문체부 장관이었던 도종환 국회의원과 정세균 국회의원 등을 만나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선정(5월 11일)에 따른 동학인문정신을 계승하고 혁명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실질적인 혁명의 시작점이 된 백산대회의 성역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2020년 국가예산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서 제출한 국가예산안에 대한 1차 예산심의를 마무리하고 지난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신규사업, 보류·깎임사업, 추가요구 사업에 대해 2차 심의를 진행하고 이달 말부터는 미결 및 잠점사업에 대해 3차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부안군은 2020년 국가예산 450억원 달성을 위해 동학농민운동 백산대회 역사공원 조성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하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계획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기재부 2차 심의 대상인 사업에 대해 이번 주부터 한근호 부군수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기재부를 방문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산내면 희망지킴이 독거노인 집 고치기 나서

산내면 정읍희망지킴이 위원들이 거동이 불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희망의 집 고치기에 나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들 독거노인은 옥외에 있는 화장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지원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에 위원들은 지난 6일 수침동에 위치한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비롯해 이장과 신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읍희망지킴이 위원 1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수세식 화장실 설치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매하고 직접 화장실 설치에 나섰다.

지원을 받은 주민은 "겨울철과 장마철이면 외부에 있는 오래된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집안에 화장실을 설치해줘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위원들은 희망의 집수리 봉사활동에 이어 지역 특성상 경사가 심해 보행이 불편한 주택 진입로에 안전바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정읍이 축제 분위이다.

'무성서원, 정읍의 자랑스러운 자랑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확정... 시민들 일제 환호

칠보면 무성리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정읍이 축제 분위기다.

지난 6일 저녁 8시 30분(현지시간 6일 오후 3시40분)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무성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된 순간, 정읍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관련기사 16면>

지난 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한국의 서원'을 등재 권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등재 가능성이 높았는지 시민은 물론 정읍시의 반응도 빨랐다. 소식과 동시에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정읍의 자랑입니다!' 등 시내 곳곳에 무성서원 등재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날에는 각급 기관과 단체, 기업체 등에서 더 많은 현수막을 내걸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무성서원 현지에서는 농악단과 지역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1시간여 넘게 축하공연도 펼쳤다. 태산문화보존회(회장 김연)와 지역주민들은 "마을의 자랑인 무성서원이 세계적인 유산으로 인정받아 정말로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시도 재빨리 움직였다. 시청사와 제2차사 보건소에 환영 걸개 현수막을 걸었고, 시청과 정읍역과 무성서원에는 애드벌룬도 띄웠다. 23개 읍면동 시 지정 50여 개소의 지정 게시대, 홈페이지와 블로그와 유튜브 등 시의 온라인, 시청사 등 지역 내

12개소의 전광판도 적극 활용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망의 전화 연결음도 등재를 환영하는 문구로 전환했고, 전북은행과 농협 측에도 ATM기에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정읍의 자랑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특히 마을 단위 일제방송을 통해 등재 소식을 알리고 "무성서원이 정읍을 넘어 전 세계 인류가 공동으로 지키고 전승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무성서원이 세계에 널리 알려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세계유산위원회 참관 차 지난 4일 아제르바이잔 현지를 방문하고 있는 유진섭 시장은 전화를 통해 "무성서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역사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국가공모 최종 선정

정읍시의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9 지역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국가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정읍시는 국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받아 용산호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27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크게 VR 체험장과 수변 둘레길 조성, 워터스프링 설치 등을 목표로 추진하며 지역주민 고용과 농산물판매장 운영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VR 체험장은 내장산과 용산호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번지점프와 수중게임, 스포츠 등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쏟아지는 물줄기를 배경으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워터스프링도 설치한다. 다양한 동영상을 구비해 환상적인 야외 공연을 선보이고 홍보영상이나 문구 등으로 관광객에게 정읍을 알릴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용산호 수변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편의시설과 경관조명 등을 설치한다. 남녀노소 가볍게 수변을 산책하면서 고품격 힐링과 친환경적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용산호 수변생태공원의 유지관리와 운영은 주민 주도하에 사업이 운영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내장산과 용산호 주변의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구축해 정읍시의 핵심 명품 관광지로 만들 계획이다"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물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출신 은희경 작가, 고향서 첫 강연 '큰 호음'

깊어가는 여름밤 한반도 첫수도 고창에서 문학 강연과 음악 공연이 진행되면서 군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7일) 오후 4시 고창군 동리국악당에서 고창 출신 베스트셀러 소설가 은희경 작가의 인문학 강연이 열렸다. 은희경 작가는 중학교 2학년까지 고창에서 살면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고창을 배경으로 한 '새의 선물'과 '비밀과 거짓말'의 장편 소설을 발표하며 큰 인기 끌었다.

은희경 작가는 "비밀과 거짓말"을 쓰려고 고향에 왔을 때 방장산, 선운산 등 높다란 산의 능선들이 너무 편안하게 해줬다"며 "친척분이 건네준 두꺼운 고창군지를 받아 미국에서 찬찬히 들여다보는데 산과 바다부터 시작해서 전봉준, 신재효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이게 내 정체성의 근간이 된 고향이란 존재가 주는 느낌이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은희경 작가는 신영철 평론가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진정한 글쓰기의 의미를 배웠던 유년시절, 고민거뭇했던 학창시절, 대학교, 결혼생활의 이야기를 찬찬히 풀어냈다. 덕분에 관객들은 은희경 작가가 지난 25년간 발표했던 작품세계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면서 2시간의 강연에 빠져들었다.

한편, 이날 밤에는 청소년들이 팀워크 댄스경연대회 펼치고 미래고창페스티벌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고창만남의 날 선포식에선 88서울올림픽의 가수 코리아나(홍화자), 김현, 김영록, 조기량, 김병수 등 고창출신의 가수들이 함께 참여해 흥을 돋웠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다둥이들, 경건한 애국가로 야구장 뜨겁게 달구

고창군 다둥이들이 경건한 애국가로 한여름 밤 야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8일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신지혜 센터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고창군 다둥이 영유아 87명(32명)이 광주 KIA 챔피언스필드 경기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LG트윈스의 경기 전 국민의례에서 애국가 부르기에 참여했다. 다둥이 가족들은 관중석의 환호 아래 그라운드에 올라, 마이크 앞에서 애국가를 경건하게 제창했다. 형, 누나들과 친한친한하게 장난을 쳤던 막내도 국민의례가 시작되자 진지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애국가를 불러 선수들과

관중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고창군은 2015년 통계청 조사에서 전국 다둥이 출산율 1위(전체 288명의 출생아 중 75명의 아이가 셋째 이상)를 기록하기도 했다.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 신지혜 센터장은 "저출산 위기의 시대에 행복한 육아실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참여해주신 다둥이 영유아 가족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둥이 부모 자조모임 운영, 다둥이 부모 간담회, 부모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첫 시설직 산업건설국장 탄생



부안군 하반기 인사를 통해 시설직 (건축) 이재원 산업건설국장이 최종 입명돼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도 탄력이 예상된다. 관측이다.

지난 5일 부안군은 인사에서 산업건축국장에 시설직인 민원과장을 승진으로 시설직에 대한 후배들의 통로를 열어줘 희망을 주고 있다. 이재원 산업건설국장은 김제시 죽산면 출신으로 1979년 10월 공직에 입문, 김제군, 정읍시, 김제시를 거쳐 2005년 부안군에 전입하여 도시, 건설, 재난안전, 건축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 경험을 쌓았다. 그 동안 부안군 현안사업인 부안읍 도시재생사업, 세계잼바라대회 기반시설구축, 새만금개발 기반구축, 농어촌 뉴딜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사업부서 경험이 많은 국장이 중용된 것.

이재원 산업건설국장은 "군 최초 시설직 국장에 임명된 만큼 무한한 영광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서간 원활한 소통과 긴박이 없는 '워킹'의 협치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국가예산확보 등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건설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빛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세** | 750ml 1ea/12% |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세** | 375ml 5ea/13% |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세** | 375ml 2ea/13% | TEL: 063-584-9980 www.gangsanwine.com